



통상이슈브리프

2025.03.19

미국의 소액면세제도 개편 영향 및 시사점

전윤식 수석연구원 (02-6000-5601, ys.jeon@kita.or.kr)

I 미국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개편

- 美 백악관은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¹⁾ 폐지를 발표했으나 현재 일시 중단 상태
 -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에 근거하여 중국²⁾·캐나다³⁾·멕시코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적용을 금지함
 - 마약 밀수에 따른 보건 위기 심화를 폐지 이유로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 강제 노동 생산품, 공급망 투명성 등의 문제로 동 제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분석⁵⁾
 - (일시 중단) 중국(2/5 행정명령⁶⁾), 캐나다·멕시코(30일간 연기 후 3월 2일 행정명령⁷⁾⁸⁾)에 각각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일시 중단
 - 중단 사유로 소액물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설명
- 미국의 소액면세 기준액 800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4년 미국에는 일일 약 4백만 개, 연간 약 14억 개의 소포가 해당 제도를 통해 유입⁹⁾

1) 관세법 321조(Section 321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의거하여 미국내 수입자의 수입품 일일 가치가 \$800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순화된 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2) Executive Order 14195(2025. 2. 1), The White House.

3) Executive Order 14193(2025. 2. 1), The White House.

4) Executive Order 14194(2025. 2. 1), The White House.

5) Jessica Lynd et al.(2025. 2. 13), "United States Begins to Restrain Cross Border E-commerce", White & Case LLP.

6) Executive Order 14200(2025. 2. 5), The White House.

7) Executive Order 14226(2025. 3. 2), The White House.

8) Executive Order 14227(2025. 3. 2), The White House.

9) De Minimis Statistic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https://www.cbp.gov/trade> (검색일: 2025년 3월 11일)

- **(현황)**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의 연간 가치는 646억 달러에 달하며¹⁰⁾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¹¹⁾
- **(비교)** 한국(\$150), EU(€ 150), 일본(¥10,000) 등은 미국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유입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며 대응 조치 검토 중

(표) 주요국 소액면세제도 운영 현황

국가	면세 한도	주요 현황 및 특징
미국	800 달러	행정명령 및 입법을 통한 개정·폐지 추진
한국	미국 : 200 달러 이외 국가 : 150 달러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로 제도 개편 검토 중
EU	非EU 국가 : 150 유로* * 관세는 면제이나 부가가치세 부과	'21.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부과 중이며, '28. 3월부터 150유로 미만 수입품 관세 부과 예정
일본	10,000 엔	중국 수입품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검토중
캐나다	미국·멕시코 : 150 캐나다 달러 이외 국가 : 20 캐나다 달러	'20.5월부터 \$40 초과 \$150 이하 미국·멕시코 제품에 관세는 면제하나 부가가치세는 부과
멕시코	미국·캐나다 : 50 달러 이외 국가 : 제도 미적용	'25.1월부터 미국·캐나다 이외 국가 대상 제도 폐지

출처 : 국가별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저자 정리

□ 소액면세제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로 초당적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트럼프 2기에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

- **(도입)** 1938년 제도 도입 후 1994년 200달러, 2016년 800달러로 기준 완화
 - 미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주고 무역 활성화, 이커머스 산업 지원, 美 관세국경보호청 업무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지지를 받아옴
- **(논란)** 기준 증액 이후 팬데믹이 겹치게 되며 소액 소포 · 마약 밀수 증가, 해외 이커머스 성장, 중국과의 적자 심화로 제도 개편 목소리가 높아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됨
 - 주요 기업의 로비, CBP의 인프라 부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 등으로 법률 제정에 실패

(표) 미국 소액면세제도 개편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일자	주요 발의자	법안명	주요 내용
'23. 6. 14.	빌 캐시디(상원, 공화당)	S.1969 - De Minimis Reciprocity Act of 2023	美 무역법 위반 및 불법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제도 미적용
'23. 6. 15.	얼 블루머나워(하원, 민주당)	H.R.4148 - 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중국 및 러시아 수입품, 일부 기업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적용 폐지
'24. 4. 15.	그렉 머피(하원, 공화당)	H.R.7979 - End China's De Minimis Abuse Act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에 해당하는 품목에 제도 미적용
'25.1.23.	존 물레나(하원, 공화당)	H.R.694 - Restoring Trade Fairness Act	對중국 소액면세제도 폐지
'25. 3. 4.	린다 산체스(하원, 민주당)	H.R.1840 - Closing the De Minimis Loophole Act	對중국 소액면세제도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 폐지

출처 : 미국 의회(Congress.gov)

10) De Minimis Statistics,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https://www.cbp.gov/trade> (검색일: 2025년 3월 11일)

11) Clark Packard(2025. 2. 21), "The High Costs of Eliminating De Minimis Shipping", CATO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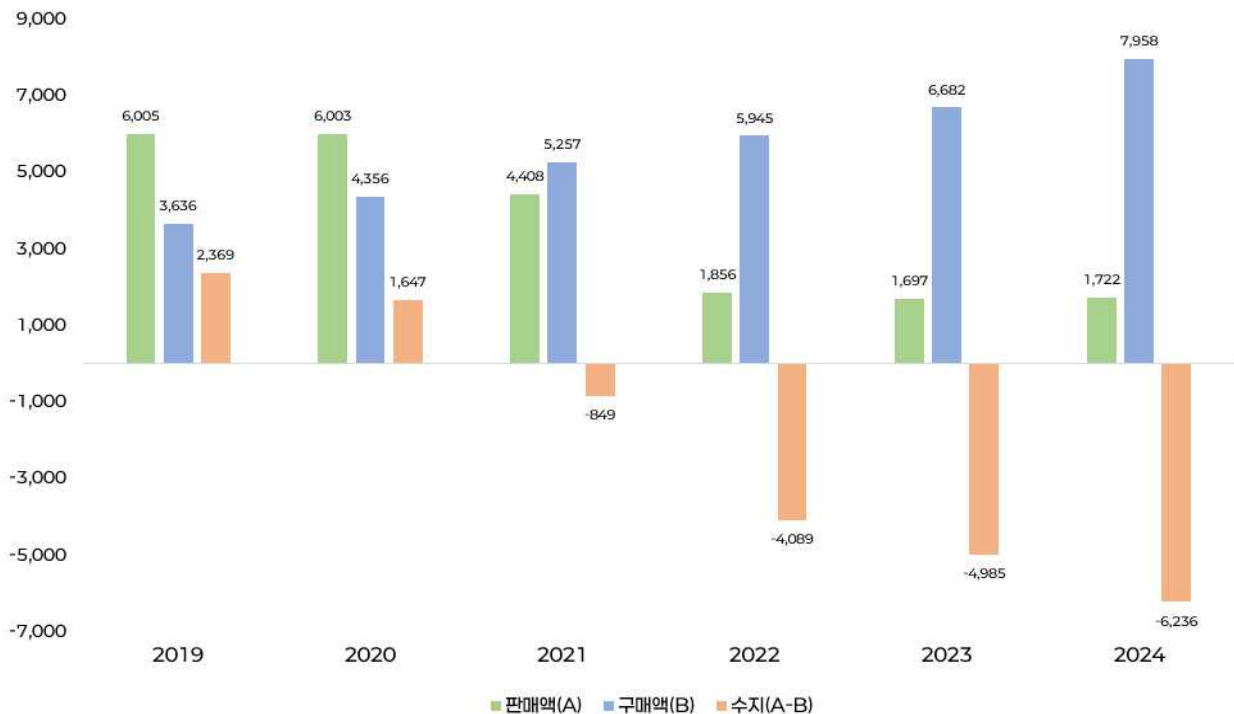
Ⅱ 제도 개편에 따른 對 한국 영향

□ 미국의 제도 개편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이미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국을 더욱 공략할 가능성
 - － 월간 사용자수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3년 ①쿠팡, ②11번가, ③지마켓에서 불과 2년 만에 '25년 1월 기준 ①쿠팡, ②알리, ③테무로 변동¹²⁾
 - － 알리익스프레스는 '23년 한국에서 사업을 개시해 '26년까지 11억 달러를 투자하고 물류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테무는 '23년 7월, 쉬인은 '24년 6월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 확장 중
-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
 - － 한국의 해외직접구매 국가별 점유율은 2019년 중국 18.2%(6,624억 원), 미국 48.6%(1조 7686억 원) 였으나, 2024년에는 중국 60%(4조 7772억 원), 미국 21.2%(1조 6873억 원) 기록¹³⁾
 - － 한국의 對세계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 368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6조 235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對中 수지는 2019년 4조 5222억 원 흑자에서 2024년 3조 7996억 원 적자로 전환

(표) 한국의 對세계 온라인쇼핑 무역 규모 및 수지

(단위: 십억 원)



출처: KOSIS

12) 박성영(2025.2.6.), “알리·테무, 압도적 물량 공세… 유통 내수시장 주도권 내주나”, 국민일보.

13) 통계청, “지역별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검색일: 2025년 3월 10일)

□ 한국도 소액면세제도 축소 혹은 폐지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 우려

○ 린다 산체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소액면세제도의 점진적 폐지 촉구

- 2024년 한국의 對美 해외직접판매액은 3,448억 원으로 5년 전보다 약 76% 상승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편시 국내 소액 수출 사업자에게 타격 불가피

* '24년 수출시장별 해외직접판매 비중 : ① 중국(9,777억 원, 56.8%), ② 미국(3,448억 원, 20%), ③ 일본(2,126억 원, 12.3%)

□ 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과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에 주의 필요

○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가 유지될 수 있고, 중국은 우회 수출 경로를 모색할 것

-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할 가능성
-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조사 강화의 필요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發 제품 조사가 엄격해질 경우 배송 지연, 규제 준수 비용, 무역 갈등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III 전망 및 시사점

□ 소액면세제도 개편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사안으로 트럼프 2기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비자 비용 증가와 행정 인력 및 예산 소요 확대로 부정적 여론도 상존

○ 행정명령으로 제도 개편 후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추후 입법화 가능성도 상당함

○ 현지 연구에 따르면 소액면세제도 폐지 시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됨

- 최대 32억 달러의 추가 예산과 22,000명의 CBP 신규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며, 기존 수입품 가격이 40-55% 상승할 것으로 예상¹⁴⁾
- 또한 제도 개편은 역진세(regressive tax)로 작용하여 빈곤층 부담 가중 전망¹⁵⁾

□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하고 해외직접판매를 확대해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美 통관·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 필요

○ (제품 차별화) 최신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는 저가 제품 추구를 넘어 품질과 브랜드 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¹⁶⁾ 중국산 대비 고품질, 국제 기준 준수, 높은 기업 투명성 등이 중요

14) Oxford Economics(2024. 9.), "Estimating the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Degrading the De Minimis Import Duty Exemption", Oxford Economics.

15) Pablo D. Fajgelbaum, Amit Khandelwal(2024. 6), "The Value of De Minimis Impor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6) Bob Hoyler et al(2025.3), "Shoppers are Redefining Value in Retail amid a New Economic Reality", Euromonitor.

○ **(해외시장 확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대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 확장

- 對美 해외직접판매에서 의류 및 패션, 화장품 분야가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무·문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음·식료품 등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임

(표) 한국의 對美 해외직접판매 주요 품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5년 성장률
합계	195,524	256,569	275,283	213,205	243,362	344,796	76.3%
의류 및 패션	55,536	82,207	96,044	86,694	86,764	105,646	90.2%
화장품	49,620	50,509	41,815	33,724	52,539	79,902	6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5,742	6,057	6,602	3,854	4,529	38,577	571.8%
음·식료품	1,675	2,755	3,913	4,969	7,002	8,039	379.9%
사무·문구	454	398	3,439	2,894	2,651	6,479	1327.1%

출처 : KOSIS

-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고 동일 연령대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미국의 60대 이상 인구를 공략하는 등 소비시장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강화¹⁷⁾

○ **(정책 검토)** 빠르게 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과 CBP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통관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제도 정비**를 통해 국내 온라인 시장 잠식과 우회 수출 등의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제도 정비)** 국내 소비자와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과 투자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소액면세제도를 개편하는 등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와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
- 주요국은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을 도입 중으로 한국도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불필요한 무역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중국의 對美 FDI는 2016년 460억 달러, 2018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이후 2022년 50억 달러 미만 수준¹⁸⁾

17) Jana Rude, Aiste Bijune(2025. 2), "Unlocking Growth in the 60+ Consumer Market", Euromonitor.

18) Thilo Hanemann et al(2023. 9. 7), "Vanishing Act: The Shrinking Footprint of Chinese Companies in the US", Rhodium Group.